

<1월 23일 토요일 법회 식순>

* 1부 : 사시헌공

♫ 불자님과 함께하는 찬불가 연습

* 2부 : 불교대강좌

- 삼귀의
- 찬불가
- 법문 - <관음경>, 동국대 불교대학 교수 김호성
- 음성공양 - 신도회 합창단
- 정근
- 사홍서원

<초청강좌 안내>

날짜	주제	법사
1. 30(토)	관음경	김호성 교수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2. 6(토)	휴 회 (개인정진)	
2. 13(토)	정초 관음기도	교법사 진우스님

<정각원 불교아카데미 모집>

구분	강좌내용	법사	강 의 실
입문반	불교입문	고금스님	법학관 B158
교리반	I 초기불교 불교신행	정천스님	법학관 B259
	II 대승불교 불교문화	명선스님	
漢詩반	한시(漢詩)강좌	동봉거사님	법학관 B260

매주 토요일 법회 후 13시 30분부터 진행합니다

※ 공지합니다! 교리반, 漢詩반 강의실 변경되었습니다. 방학기간(1월 9일~2월 27일)중 법학관으로 변경, 3월부터는 기존 명진관 강의실에서 다시 진행됩니다.



정각원 부처님께 공양미 올리세요!
보시금은 1만원입니다. <정각원 신도회>

丙申年 인등을 밝히세요



각자의 원을 담은 공덕행(功德行)!
행복도량 정각원에 인등을 밝히세요~

1년 5만원 <토요 사시기도에 축원해 드립니다>

정각원 행정팀 ☎ 2260-3016~20



崇政殿 현판 전시 안내

정각원 내부에 모셔진 송정전 현판이 <서울 2000년 역사문화 특별전 '경희궁'>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경희궁의 창건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을 살펴보고, 경희궁의 흩어진 부재들의 흔적 찾기를 통해 궁으로서의 위상 및 역사성을 회복하고자 기획된 전시이니 많은 관람바랍니다.

- * 기 간 ~ 2016년 3월 13일(일)
- * 장 소 종로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A
- * 문 의 02)724-0274~6

보시동참

☞ 1월 18일 불전 공양 ☞

₩2,337,000원 (복지기금 적립 포함)

성타스님, 보광스님, 해주스님, 진우스님, 김문자, 김봉주, 강효원, 고목훈, 구리시효자봉비어, 권복숙, 권혁채, 김기현, 김원욱, 남대문효자손만두, 남창강, 도연화, 박선재, 박성진, 박세협, 박영태, 박재호, 백광호, 윤병남, 윤호문, 이기형, 이동하, 이봉자, 이성부, 이수준, 정도원륜, 정보현, 조혜임, 주호빈, 주호성, 최선자, 최은진, 한미숙, 한영욱
(그 외 무기명 보시 불자님)

☞ 법회경비 집행내용 : 교비 지출 ☞

₩1,072,000원

(법사비, 토요일법회 녹화영상 편집비, 법보지 인쇄비 등)

☞ 인등공양 ☞

권용재, 권용휘, 김도영, 김석준, 김용태, 김진, 김창균, 김현재, 레이킴, 유보라, 유종훈, 이기은, 이용우, 최연효

☞ 공양 보시 ☞

❖ 불단 떡/과일 : 정각원 신도회

부처님께 올리는 여섯 가지 공양(향, 초, 차, 과일, 꽃, 쌀)에 신도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정각원에 보시해주신 불전금(연등, 인등)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https://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정각원 행정팀 2260-3016



구도의 마음을 일으키는 이 한 생각은 저 영원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저 영원한 시간은 진리를 향한 지금 이 한 생각 속으로 응집된다. [법성계]

고려불화의 대표작 <수월관음도>



● 공산사 수월관음도는 측면을 향해 앉아 있는 일반적인 수월관음도 형식과 달리, 관음보살이 결가부좌하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음보살이 연꽃을 들고 있는 예는 드문 편이고, 정병도 보통은 좌측에 위치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우측에 있으며, 통상 관음보살 뒤편에 그려지는 대나무도 화면 하단 좌우에 기암 괴석과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고려시대 수월관음도의 형식과 구별되는 가치 있는 작품입니다. **정각**

(고려후기, 비단에 채색, 1460×85cm, 일본 功山寺 소장)

〈관음경〉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교수 김호성

【일러두기】

1. 《관음경》은 대정신수대장경 제9권에 수록되어 있는 《묘법연화경》(구마라집 역)의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을 저본으로 삼는다.
2. 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은 산스크리트본 [梵本]이 남아 있다. 따라서 한역본을 저본으로 삼아서 번역하지만, 의미 파악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산스크리트본을 참조하였다. 가끔 산스크리트본에 따른 경우도 있다. 이를 위해서 오래 전 책이지만, 《범문해설 관음경》(濤邊大島 저, 범문원전간행회, 1941)을 의지하였다.
3. 문맥의 파악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서는 () 속에 보충하는 말을 넣어둔 곳이 있다.
4. 의미 파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소제목을 붙여 두었다.

관세음보살이라 불리는 이유

그때 무진의無盡意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서 합장하여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어떠한 인연으로 관세음觀世音이라 이름합니까?”

부처님께서 무진의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만약 무량백천만억의 중생이 여러 가지 고뇌를 받고 있을 때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서는 일심一心으로 이름을 부른다면, 관세음보살은 즉시에 그 음성을 관찰하시고 모두 벗어나게 [解脫] 하실 것이다.

칠난(七難)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닌다면 가령 큰 불에 휩싸이게 되더라도, 불이 능히 태울 수 없게 될 것이니 이 보살의 위신력威神力 덕분이다.

가령 홍수에 떠내려가더라도 그 이름을 부르면 곧 수심水深이 낮은 곳에 이르게 되리라.

백천만억의 중생이 금·은·유리·자거·마노·산호·호박·진주 등의 보배를 구하여 큰 바다에 들어갔는데, 가령 검은 바람이 그 배에 불어서[吹] 나찰羅刹 귀신의 나라에 표류하게 되었다 하자. (그럴 때)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른다면, 이러한 사람들이 모두 나찰 귀신의 나라에 표류한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리라. 이러한 인연으로 관세음보살이라 이름하는 것이다.

다시 어떤 사람이 해를 입게 되었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른다면, 해를 입히려는 사람이 갖고 있는 칼과 몽둥이가 이내 조각조각 부서져서 마침내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다.

삼천대천국도에 가득 찬 야차夜叉, Yakṣas와 나찰이 와서 괴롭히고자 하더라도 그가 부르는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들으면, 이 모든 악귀들이 나쁜 눈으로 그를 볼 수도 없거늘 하물며 다시 해칠 수 있겠는가.

가령 어떤 사람이 죄가 있든지 죄가 없든지, 쇠고랑·차꼬·칼[枷]·쇠사슬 등으로 그의 몸을 묶었다 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 모든 것이 다 부서져서 곧 놓여나게 될 것이다.

삼천대천의 국토에 도적들이 가득한데, 어떤 한 거상巨商·商主이 여러 상인들과 함께 귀중한 보배를 갖고서 험한 길을 지나 간다고 하자. (그럴 때)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善男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이제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이 보살님은 능히 두려움 없음을 중생들에게 베푸시는 분이시니, 여러분들이 만약 (이 보살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이러한 도적들로부터 완전히 놓여나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자, 여러 상인들이 이 말을 듣고서는 다 함께 소리 내어 ‘나무관세음보살’이라 한다면, 그 이름을 부른 까닭에 곧 (모든 공포로부터) 완전히 놓여나게 될 것[解脫]이다.

무진의보살이여, 관세음보살마하살의 위신력威神之力이 높고도 높은 것이 이와 같다.

삼독(三毒)

만약 어떤 중생이 성욕[淫欲]이 많다고 하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염念하고 공경하면, 곧바로 욕망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만약 어떤 중생이 화를 잘 낸다고 하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염하고 공경하면, 곧바로 분노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다.

만약 어떤 중생이 크게 어리석다 하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염하고 공경하면 곧바로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다.

무진의보살이여, 관세음보살은 이렇게 큰 위신력이 있어서 (중생을) 이익케 하는 바가 많다. 그러므로 중생들은 언제나 마음으로 염해야 한다.

이구(二求)

만약 어떤 여인이 가령 아들을 낳고자 하여 관세음보살을 예배하고 공양한다면 곧 복이 있고 지혜로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가령 딸을 낳고자 하여 (관세음보살을 예배하고 공양한다면) 곧 단정하고 예쁜 딸을 낳으리니, 일찍이 덕의 뿌리를 심었으니 많은 이들이 사랑하고 존경하게 될 것이다.

무진의보살이여, 관세음보살에게는 이러한 힘이 있느니라.

공양의 공덕과 칭명(稱名)의 공덕

만약 중생이 관세음보살을 공경하고 예배한다면, 복이 생기리라는 것은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중생들 모두가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마땅히 받아 지녀야 할 것이다.

무진의보살이여, 어떤 보살이 62억 향하사나 되는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녀서 목숨이 다하도록 음식 · 의복 · 침구 · 의약을 공양한다고 하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하는 선남자 혹은 선여인의 공덕이 많겠느냐?”

무진의보살이 대답하였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또한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또 한 번이라도 예배하고 공양한다면, 이 두 사람의 복은 정히 같아서 다름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두 경우에 쌓아올린 복덕은) 백천만억이나 되는 오랜 세월을 지낸다 하더라도 가히 다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무진의보살이여,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는 일에는 이렇게 한량없으며 가이없는 복덕이 있는 것이다.”

중생 교화의 방법

무진의보살이 부처님께 사뢰어 말씀하였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어떻게 이 사바세계에서 활동하는[遊] 것입니까? 어떻게 중생을 위하여 법을 설하는 것입니까? 방편의 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무진의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만약 모든 세계 [國土, lokadhātu] 의 중생들을 붓다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제도할 수 있다면, 관세음보살은 곧 붓다의 모습을 나타워서 법을 설하신다.

마땅히 辟支佛, Pratyekabuddha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제도할 수 있다면, 곧 벽지불의 모습을 나타워서 법을 설하신다.

마땅히 성문聲聞, Śravaka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제도할 수 있다면, 곧 성문의 모습을 나타워서 법을 설하신다.

마땅히 범왕梵王, Brahman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제도할 수 있다면, 곧 범왕의 모습을 나타워서 법을 설하신다.

마땅히 제석帝釋, Śakra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제도할 수 있다면, 곧 제석의 모습을 나타워서 법을 설하신다.

마땅히 자재천自在天, Īśvaradeva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제도할 수 있다면, 곧 자재천의 모습을 나타워서 법을 설하신다.

마땅히 대자재천大自在天, Maheśvara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제도할 수 있다면, 곧 대자재천의 모습을 나타워서 법을 설하신다.

마땅히 천대장군天大將軍, Cakravartirāja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제도할 수 있다면, 곧 천대장군의 모습을 나타워서 법을 설하신다.

마땅히 비사문毘沙門, Vaiśravaṇa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제도할 수 있다면, 곧 비사문의 모습을 나타워서 법을 설하신다.

마땅히 왕小王, Senāpati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제도할 수 있다면, 곧 왕의 모습을 나타워서 법을 설하신다.

마땅히 장자長者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제도할 수 있다면, 곧 장자의 모습을 나타워서 법을 설하신다.

마땅히 거사居士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제도할 수 있다면, 곧 거사의 모습을 나타워서 법을 설하신다.

마땅히 재관幸官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제도할 수 있다면, 곧 공무원의 모습을 나타워서 법을 설하신다.

마땅히 바라문婆羅門, Brahman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제도할 수 있다면, 곧 바라문의 모습을 나타워서 법을 설하신다.

마땅히 비구比丘, Bhikṣu · 비구니比丘尼, Bhikṣuni · 우바새優婆塞, Upāsaka · 우바이優婆夷, Upāsika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제도할 수 있다면, 곧 비구 · 비구니 · 우바새 · 우바이의 모습을 나타워서 법을 설하신다.

마땅히 장자 · 거사 · 재관 · 바라문 부녀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제도할 수 있다면, 곧 (장자 · 거사 · 재관 · 바라문의) 부녀의 모습으로 나타워서 법을 설하신다.

마땅히 소년 [童男] 소녀 [童女] 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제도할 수 있다면, 곧 소년 소녀의 모습을 나타워서 법을 설하신다.

마땅히 천天, Deva · 용龍, Nāga · 야차夜叉, Yakṣa · 건달바乾達婆, Gandharva · 아수라阿修羅, Asura · 가루라迦樓羅, Garuḍa · 긴나라緊那羅, Kinnara · 마후라가摩睺羅迦, Mahoraga · 사람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존재[人非人]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제도할 수 있다면, 곧 모두 그렇게 나타워서 법을 설한다.

마땅히 집금강執金剛, Vajrapāṇi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제도할 수 있다면, 곧 집금강의 모습을 나타워서 법을 설한다.

시무외자 관세음보살

무진의보살이여, 관세음보살은 이러한 공덕을 성취하였으므로 갖가지 모습으로 온 누리에서 활동하시면서 중생을 (어려움 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은 마땅히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공양해야 하느니라. 이 관세음보살마하살은 두렵고 긴급한 어려움에 처한 중생에게 능히 두려움 없음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사바세계에서는 모두 ‘두려움 없음을 베푸시는 분 [施無畏者, Abhayam.dada]’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무진의의 공양과 관음의 사양

무진의보살이 부처님께 사뢰어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마땅히 관세음보살님을 공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곧 목에서 백천냥이나 되는 금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여러 가지 보배구슬과 영락瓔珞을 풀어서 (관세음보살님께) 드리고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성자 [仁者] 시여, 이 법시法施의 진귀한 보배영락을 받으소서.”

그때 관세음보살은 그것을 받으려 하시지 않으셨다. (그러자) 무진의보살은 다시 관세음보살께 사뢰었다.

“성자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영락을 받아주소서.”

부처님의 권유

그때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마땅히 이 무진의보살과 사부대중[四衆] · 천 · 용 · 야차 · 건달바 · 아수라 · 가루라 · 긴나라 · 마후라가 · 사람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존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영락을 받아주소시오.”

(이에) 곧 관세음보살은 사부대중 및 천·용·(내지) 사람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존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 영락을 받으시고서는, 둘로 나누셨다. 반[一分]은 석가모니불에게 올리시고, 반은 다보불多寶佛의 탑에 올리셨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진의보살이여, 관세음보살은 이러한 자유자재한 신력神力이 있기에 이러한 사바세계에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활동하시는 것이다.”